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자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강 문 일 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학박사

최근 세계 각국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의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가축전염병은 더 이상 축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축산의 기업화로 인한 경영규모 성장 및 가축·축산물의 유통 범위의 급속한 확대로 한 지역에서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지리적인 장벽(Barrier)은 과거와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역의 자유화와 해외여행객의 빈번한 왕래, 주변국들의 가축전염병 발생 실태와 만족스럽지 못한 방역대처 상황 등은 끊임없이 우리 국경을 넘어 축산농가의 문턱을 위협하고 있다. 종축(種畜)을 비롯하여 사료원료 및 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축산여건을 감안하면 구제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의 유입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하겠다.

국내에서는 '00년과 '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 <표 1 참조>를 입었다. 대만은 '97~'01년까지 5년간 6천여 농가에서 발생하여 양돈관련 산업피해와 수출중단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손실 총액이 4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00년부터 전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01년 2천건 이상의 구제역 발생으로 총 21.8조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표 1> '00년, '02년 국내 구제역 발생 및 방역조치 상황 (농림부 자료)

구 분	2000년	2002년
발생상황	- 기간: 3.24~4.15(22일간) - 건수: 15건(소 15건)	- 5.2~6.23(52일간) - 16건 (돼지 15건, 소 1건)
방역조치	- 살처분 2,216두 - 반경 10km내 예방접종(2차)	- 살처분 160,155두 - 예방접종 배제
직 접 피 해 액	- 3,006억원(이하 단위 : 억원) · 살처분 보상금 : 71 · 소독약품·예방접종 등 : 202 · 가축수매지원 등 : 2,793	- 1,434억원(이하 단위 : 억원) · 살처분 보상금 : 531 · 소독약품 등 : 154 · 가축수매지원 등 : 749

철저한 방역의식으로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자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렇듯 한번 발생하면 축산업 등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동향에 대응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가축소유자 및 관련업 종사자 등이 방역 기본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종합적이며 효율적인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로 세계적인 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동물 또는 축산관련 물자의 수입상황과 그 위험도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국경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축산농가에도 널리 홍보하고 질병진단 체계, 방역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축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시험·연구로 방역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방역관리의 통합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대응계획에 따른 실질적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지도·관리와 함께 축산농가 자율방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 및 민간방역단체에서는 가축소유자 등에게 가축위생 지식을 개발·보급하고 가축소유자의 개별적인 자율방역 추진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상승효과가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 방향에 대한 가축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실행과정상의 문제점이 시기 적절하게 보완되어 민·관 신뢰 유지와 함께 방역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전파양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감염 가축의 이동, 농장 출입자, 운송 차량, 야생동물, 오염된 기구·장비 등에 의하여 농장간 질병 전파가 이루어지므로 가축전염병의 예방은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농장단위의 자율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농장단위의 질병전파 요인별 기본적인 방역관리요령을 살펴봄으로써 자율방역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철저한 가축의 이동관리

돼지를 구입할 경우 떨이돼지를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믿을만한 농장에서 구입하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유무와 돼지오제스키병 등 중요 질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구입 후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 기존 사육돼지와 격리하여 사육하면서 이상유무를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질병의 의심이 가는 경우 공인된 병성감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존 사육돼지와 합사하여야 한다.

둘째, 가축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율방역 실천

농장단위의 차단방역 이행에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농장주 자신과 관리자 스스로의 차단방역 실천이다. 외부적인 요인에 엄격한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도 정작 사육되

는 가축과 가장 접촉이 잦은 본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농장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지, 귀가 후 축사에 출입할 때에는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장화소독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이나 신발 및 개인 휴대품을 세척·소독하고 축산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착용할 작업복과 장화를 따로 지급하고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외출 후 귀가 시에도 반드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손과 장화를 소독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

농장 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사료배달 차량, 가축출하 차량은 가능한 경우 지정차량만 농장내로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농장입구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가급적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료수의사, 동물약품 배달자, 컨설팅 관계자 등 부득이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여러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량은 농장밖에 주차하도록 하고 1회용 위생복과 장화를 착용·소독을 실시한 다음 출입토록 하여야 하고 방문자가 농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장비 등도 사전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확인도하여야 한다. 우편물·택배 배달자, 우유·신분 배달부

등도 여러 농장을 출입하게 되므로 사육 가축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방역조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농장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도록 농장입구에 우편함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대한 조치

농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농장 간에 드나드는 쥐나 야생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해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제역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야생동물의 털이나 발바닥 등에 병원체를 묻혀 기계적인 전파가 가능하므로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장 여건에 맞는 야생동물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개나 고양이도 반드시 일정 구역에 가두어 두어야 한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을 경험하면서 농장단위에서의 방역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으나,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취약한 사육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모범답안과 같은 차단방역의 이행이 매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축소유자의 실천 의지이다.

이제 겨울동안 움츠렸던 동물들이 활발하게 이동하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더욱 왕성해지는 등 질병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 축산농가 모두가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의 끈을 조여야 할 때다. 앞서 기술한 농장단위의 차단방역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악성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덫으로부터 내 농장을 지키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여야 한다. **양돈**